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죄책감을 매개변인으로 -

이 응 택

김포시청소년지원센터

이 은 경[†]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녀 중·고등학생 33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남자 160명(49%), 여자 170명(51%)이며, 중학생 177명(53%), 고등학생 153명(47%)이었다. 측정도구는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척도(허묘연, 2000), 죄책감 척도(TOSCA-Adol), 그리고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오경자, 홍강의, 이혜린, 하은혜, 1997)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17.0을 사용했으며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Sobel의 z test를 사용해서 죄책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죄책감,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죄책감은 아버지 과잉간섭과 어머니 학대와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적절한 훈계와 감독이,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과 훈육이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과 문제행동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부모상담시 부모 양육태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도덕성발달과 관련하여 부모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함께 제시되었다.

*주요어: 부모 양육태도, 죄책감, 청소년 문제행동

* 본 연구는 이응택(2011)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은경,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Tel: 02-300-0624, E-mail: eklea@mju.ac.kr

2010년 한 해 동안 검거된 소년범은 118,058명으로 전체 범죄자 중 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 유형면에서는 폭력, 절도 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형법범이 72.9%에 이른다. 소년범 중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은 2008년보다 20%증가하여 전체 강력범죄의 13.3%를 차지한다. 또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32.4%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의 상당수가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경찰백서, 2011). 이처럼 청소년 비행은 저연령화·폭력화·조직화 경향과 함께 재범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범률의 증가는 청소년 문제행동이 일회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추후 더 큰 문제인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김준호, 1993; 김준호, 이순래, 1995; 조아미, 2011; 최인재, 이기봉, 김청송, 김진호, 2010; Bernburg, Krohn, 2003; Horibata, 2006; Kalb, Williams, 2002).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우선, 청소년 문제행동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은 일차적으로 환경적 요인인 가정요인(남현미, 1999; 임성택, 김혜진, 2001;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속해있는 가정과 문제행동이 일차적으로 연관성을 갖으며 다른 어떤 변인 보다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핵가족화와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부모의 역할 부재와 이에 따른 자녀의 방치 그리고 편부, 편모,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정 형태의 가족해체 현상은 역기능적 가족관계와 적절한 부모 양육기능의 부재를 초래하여 청소년 문제의 주된 원인 및 위험요인이 된다(이석형, 2007; 이시연, 2011; 최인재 외, 2010).

Hamner와 Turner(2001)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의 강력한 모델로 자녀의 성격 형성과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 가치, 도덕성을 획득하는 사회화 과정과 더불어 자녀의 부적응 경감과 완충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고 하였다(박주희, 2001). 더욱이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끊임없는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부모와의 초기 경험이 아동의 인지 및 정서 발달, 인격형성 및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는 신경증과 정신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Kolb, Brodie, 1982).

류설령(1999)은 일반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보다 부와 모의 애정적 및 자율적 차원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비행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독재적 양육태도를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일반 청소년들은 아버지에 대해 민주적 양육태도를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서미경(2003)은 부모와의 관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비행 경향성은 낮은 반면 부모가 과잉통제를 하게 되면 비행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의 학대와 같은 무력적인 폭력은 청소년들을 우울하고 위축되게 하며 청소년 문제행동을 유발시키지만(백혜정, 황혜정, 2006), 가족애착, 가족응집력, 가족지지, 합리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석형, 2007; 이상균, 2008)이 된다.

부모 양육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차이가 있다(김미진, 1997; 배문주, 2004; 류설령, 1999; 서미경, 2003; 한지선, 2008). 예를 들어, 배문주(2004)와 한지선(2008)은 아버지 중에는 애정적·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아버지가 많았지만 어머니는 애정적·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영주와 김은주(2006)는 애정적 태도, 적대적 태도, 통제적 태도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는 자율적 태도에서 어머니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일차적 요인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가 심리적으로 많은 혼란과 변화를 겪는 시기(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89)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심리

적 변인도 중요하다(서찬란, 이형실, 2006 재인용).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적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이경남, 2004; 장연심, 조아미, 2007; 최윤경, 2002)과 자아통제력(고정자, 2005; 남현미, 1999; 이경남, 2002; 하영희, 2003; Feldman, Wentzel, 1990)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김미정, 2005; 김민선, 2006; 김윤희, 2001; 김윤희, 황순택, 2003;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이성, 2006; 장진아, 신희천, 2006; Shonk & Cicchetti, 2001)이 연구되었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도덕성 결여의 측면에서 논의(한세영, 2007)하기도 한다. 사회심리학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은 특정행동에 대한 자각 능력에 따라 그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된다(Horowitz, Bordens, 1995). 이 이론은 한 청소년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행동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을 통제시키고 억제시키는데 도덕적 판단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최인재 외, 2010). 이렇듯 도덕성은 한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도록 하는 요소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뉘우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나 도덕성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범법행위나 비행행위를 저지르고도 잘못된 행동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도덕적 특성을 가진 정서가 도덕적 행동을 유발시키며 부도덕한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수용되고 있다(Ben-Ze'ev, 1997; Blum, 1980).

도덕적 정서는 자신의 위반행위나 실패, 잘못을 인식할 때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김경희, 2002; Tangney, 1996). 죄책감은 전반적인 자기가 아닌 행동의 어떤 측면에 대해 평가하고 비난하며 자신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려한다. 죄책감의 현상학적 경험은 긴장감이나 자책과 후회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자백하고, 사과하며, 보상하도록 동기화 한다(류설영, 1998; Tangney, 200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이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 두려움, 부끄러움, 죄책감, 후회,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다면 도덕적 위반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감소된다고 하였다(김은미, 2006; 최보가, 유연옥, 2000). 또한 이상현(1994)은 죄책감의 결핍이 비행이나 범법행위를 유도하며, 류설영(1998)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 청소년들의 죄책감 결핍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이 특징이라 하였다. 이렇듯 죄책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규칙위반행동을 더 적게 하며(김경연, 하영희, 2000; 하영희, 김경희, 2003; Bybee, Williams, Merisa, 1994; Holmes, 1972; Mosher, 1979), 사회적 행동 및 감정이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apman, Zahn-Waxler, Cooperman & Iannotti, 1987; Tangney, 1991).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죄책감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청소년 문제행동은 감소하며, 청소년의 공격성과 규칙 위반 등과 같은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영자, 김윤희, 1999; 김경연, 하영희, 2003; 이상현, 1994; 최보가, 유연옥, 2000; Bybee, Williams, Merisa, 1994; Chapman, Zahn-Waxler, Cooperman, Iannotti, 1987; Mosher, 1979; Tangney, 1991).

개인의 죄책감은 주로 아동기 때 발달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Erikson은 죄책감을 부모가 주도성을 발달시키지 못해 생긴 결과로, Klein은 사랑과 배상문제의 중추이며, Lewis는 어머니-아동간의 분열로 생긴 감정적 유대에서 기인된다고 하였다(김경희, 2002 재인용). Tangney와 Dearing(2002)은 수치심과 죄책감은 주로 생애 초기의 관계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신념과 훈육이 중요한 매개변인이 되어 영향을 미치며, Aronfreed(1964)는 부모의 애정철회나 권력에 의한 처벌이

자녀의 죄책감 증진에 도움이 되고, Ferguson과 Stegg(1995)는 아동의 죄책감이 부모의 훈육방식과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부모의 분노경험 정도와 관련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경연과 하영희(2003)는 부모의 설득형 훈육이 자녀의 죄책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죄책감은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선희(2007)는 모의 애정-적대가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며, 김형민(2010)은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 자율-통제가 수치심에만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대만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김소명(2009)은 죄책감의 경우 부모의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방치, 학대와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양육태도 모두 수치심과 죄책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국, 부모의 양육이 아동기 때의 죄책감 발달에 중요한 변인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에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청소년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조절변인(moderating effects)이나 매개변인(mediating effects)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한상철, 2008; Masten, 2001). 예를 들어, 자아통제력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조절변인이라는 관점에서 효과를 증명하였고(김미정, 2005; 김현순, 2005; 이지숙, 2009; 임성택, 2001), 자아탄력성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유성경 외 2004; 장진아 외, 2006; 한현하, 도현심, 2008). 그렇다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죄책감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하영희와 김경희(2003)는 부모의 설득형 훈육방식과 청소년 금지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

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련성보다는 교내에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송경희(2010) 역시 또래괴롭힘을 가해행동과 방어행동으로 구분하여 가해행동과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마음읽기 능력과 죄책감이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죄책감 발달과 관련된 원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청소년 문제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 문제행동에 부모 양육태도와 죄책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모 양육태도와 죄책감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나 공격적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죄책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2개의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40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399개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일부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64개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3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160명(49%), 여자 170명(51%), 무응답 5명, 학년별로는 중학생 177명(53%), 고등학생 154명(47%)이었다.

측정도구

부모 양육태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3문항, 4점 Likert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체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원래의 척도는 총 8개의 요인(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의 총점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일관성의 신뢰도가 적어 비일관성 4문항을 제외하고 총 39문항과 7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아버지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감독 .78, 합리적 설명 .76, 애정 .81, 과잉간섭 .73, 과잉기대 .72, 학대 .77, 방치 .6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 별 Cronbach's α 는 감독 .78, 합리적 설명 .77, 어머니 애정 .78, 과잉간섭 .73, 어머니 과잉기대 .72, 학대 .78, 방치 .68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태도 전체 Cronbach's α 는 .85, 어머니 양육태도는 .87이었다.

죄책감

Tangney, Waggnner 및 Gramzow(1989)에 의해 개발된 수치심 및 죄책감 척도 청소년 용(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Adol)을 사용하여 죄책감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의 초점이 자기 전체 또는 행동에 맞추어 지는지에 따라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자기 의식적 정서를 현상학적으로 나타내는 몇 가지 대안 반응에 대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죄책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수치심 및 죄책감 척도는 시나리오 질문지로 총 15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류설영(1999)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고 총 12개의 시나리오로 재구성하여 번안, 수정하였다. 모두 50개의 반응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며, 총점이 높을수록 죄책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류설영(1999)이 수정 번안한 척도(TOSCA-Adol)를 사용하였다. 류설영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청소년 문제행동

Achenbach(1983)가 개발하고 오경자, 홍강의, 이혜린, 하은혜(1997)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Youth Self-Report: K-YSR) 중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의 일부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공격성 19문항, 비행 11문항의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정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 수는 30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 채점은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고, 연구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3단계에 걸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검증을 위해 Sobel의 Z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 양육태도, 죄책감, 청소년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1>과 같다. 먼저 아버지 양육태도와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표 1. 부모 양육태도, 죄책감 그리고 청소년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1	1-1	1-2	1-3	1-4	1-5	1-6	1-7	2	2-1	2-2	2-3	2-4	2-5	2-6	2-7	3	4	
1. 아버지 양육태도	1																		
1-1 감독	.44***	1																	
1-2 합리적설명	.60***	.43***	1																
1-3 애정	.69***	.45***	.59***	1															
1-4 과잉간섭	-.61***	.02	-.04	-.13*	1														
1-5 과잉기대	-.38***	.20***	.14**	.09	.44***	1													
1-6 학대	-.57***	.05	-.18***	-.18***	.38***	.24***	1												
1-7 방치	-.71***	-.33***	-.41***	-.54***	.26***	.08	.38***	1											
2. 어머니 양육태도	.72***	.37***	.38***	.47***	-.46***	-.24***	-.39***	-.58***	1										
2-1 감독	.41***	.56***	.26***	.32***	-.17**	.06	-.15**	-.32***	.55***	1									
2-2 합리적설명	.48***	.32***	.64***	.42***	-.15**	.06	-.12*	-.37***	.63***	.39***	1								
2-3 애정	.56***	.37***	.42***	.66***	-.21***	.03	-.16**	-.45***	.75***	.53***	.60***	1							
2-4 과잉간섭	-.40***	-.11	-.08	.11	.59***	.19***	.19***	.23***	-.61***	-.01	-.21***	-.24***	1						
2-5 과잉기대	-.24***	.04	.10	.06	.23***	.68***	.10	.07	.41***	.08	.02	-.00	.37***	1					
2-6 학대	-.44***	-.08	-.10	-.19***	.25***	.12*	.67***	.41***	-.61***	-.22***	-.18***	-.30***	.33***	.23***	1				
2-7 방치	-.59***	-.24***	-.29***	-.43***	.29***	.11*	.36***	.73***	-.73***	-.48***	-.40***	-.59***	.24***	.10	.46***	1			
3. 죄책감	.35***	.19**	.27***	.29***	-.21**	.01	-.21**	-.27***	.39**	.37***	.34**	.40***	-.10	.06	-.27***	-.33**	1		
4. 청소년 문제행동	-.32***	-.12*	-.12*	-.18***	.27***	.03	.29**	.32**	-.35***	-.22***	-.20***	-.26**	.21***	.04	.30***	.32***	-.26***	1	

* $p < .05$, ** $p < .01$, *** $p < .001$

살펴보면, 아버지 양육태도는 죄책감($r = .35$,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청소년 문제행동($r = -.32$,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변인들로 보면, 아버지 감독($r = .19$, $p < .001$), 아버지 합리적 설명($r = .27$, $p < .001$), 아버지 애정($r = .29$, $p < .001$)과 죄책감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지만, 아버지 과잉간섭($r = -.21$, $p < .001$), 아버지 학대($r = -.21$, $p < .001$), 아버지 방치($r = -.27$, $p < .001$)와 죄책감은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 과잉간섭($r = .27$, $p < .001$), 아버지 학대($r = .29$, $p < .001$), 아버지 방치($r = .32$, $p < .001$)와 청소년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아버지 감독($r = -.12$, $p < .05$), 아버지 합리적 설명($r = -.12$, $p < .05$), 아버지 애정($r = -.18$, $p < .001$)과 청소년 문제행동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두 번째로 어머니 양육태도와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태도는 죄책감($r = .39$,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청소년 문제행동($r = -.35$, $p < .001$)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태도의 하위변인들로 보면, 어머니 감독($r = .37$, $p < .001$), 어머니 합리적 설명($r = .34$, $p < .001$), 어머니 애정($r = .40$, $p < .001$)과 죄책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어머니 학대($r = -.27$, $p < .001$), 어머니 방치($r = -.33$, $p < .001$)와 죄책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 감독($r = -.22$, $p < .001$), 어머니 합리적 설명($r = -.20$, $p < .001$), 어머니 애정($r = -.26$, $p < .001$)과 청소년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어머니 과잉간섭($r = .26$, $p < .001$), 어머니 학대($r = .30$, $p < .001$), 어머니 방치($r = .32$, $p < .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세 번째로 죄책감은 청소년 문제행동($r = -.26, p < .0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변인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사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는 3단계를 거쳐야 매개효과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하고, 두 번째로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언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독립

변인과 매개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β 값이 첫 번째 단계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β 값 보다 작아야 한다. 또한 매개변인을 통제한 독립변인의 β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가 크고 0이면 완전효과를 지닌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때 첫 번째 절차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하는 것은 아니다(Baron, & Kenny, 1986).

매개효과 검증 분석결과 <표2>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아버지의 과잉간섭($\beta = .20, p < .001$), 학대($\beta = .17, p < .01$), 방치($\beta = .21, p < .001$)는 청소년

표 2.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변인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 검증

단 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 ²	adjR ²	F
1	청소년 문제행동	감독	-.04	.04	-.06	-1.04	.17	.15	9.50***
		합리적설명	.04	.05	.05	.78			
		애정	.00	.06	.00	.05			
		과잉간섭	.17	.05	.20	3.38***			
		과잉기대	-.10	.05	-.11	-1.97			
		학대	.17	.06	.17	2.89**			
		방치	.20	.06	.21	3.26***			
2	죄책감	감독	.05	.04	.07	1.13	.15	.13	8.19***
		합리적설명	.11	.06	.12	1.88			
		애정	.09	.06	.10	1.43			
		과잉간섭	-.15	.06	-.17	-2.74**			
		과잉기대	.06	.05	.07	1.20			
		학대	-.11	.06	-.11	-1.76			
		방치	-.06	.07	-.06	-.91			
3	청소년 문제행동	감독	-.04	.04	-.05	-.89	.19	.17	9.36***
		합리적설명	.06	.05	.07	1.06			
		애정	.02	.06	.02	.26			
		과잉간섭	.15	.05	.17	2.97**			
		과잉기대	-.09	.05	-.10	-1.81			
		학대	.16	.06	.16	2.64**			
		방치	.19	.06	.21	3.15**			
		죄책감	-.14	.05	-.14	-2.67**			

* $p < .05$, ** $p < .01$, *** $p < .001$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단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력은 17%였다. 2단계에서는 아버지 과잉간섭($\beta = -.17, p < .01$)만이 죄책감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2단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력은 15%였다. 3단계에서는 아버지 과잉간섭($\beta = .17, p < .01$), 학대($\beta = .16, p < .01$), 방치($\beta = .21, p < .01$)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죄책감($\beta = -.14, p < .01$)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 또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력은 19%였다. 하지만 1, 2, 3단계 모두에서 아버지 과잉간섭만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과잉간섭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의 β

= .20이며 회귀모형은 1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3단계에서는 $\beta = .17$ 이며 19%의 설명력으로 총 $\beta = .03$ 이 감소하였고 설명력은 2% 증가하였다. 한편 Sobel test 결과 $z = 2.49, p < .01$ 으로 나타나 죄책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

어머니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 검증 분석결과 <표3>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어머니 과잉간섭($\beta = .12, p < .05$), 학대($\beta = .17, p < .001$), 방치($\beta = .14, p < .05$)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단계를

표 3. 어머니 양육태도의 하위변인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 검증

단 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 ²	adjR ²	F
1	청소년 문제행동	감독	-.06	.05	-.08	-1.26	.15	.13	8.38***
		합리적설명	-.02	.05	-.03	-.40			
		애정	-.04	.06	-.04	-.56			
		과잉간섭	.10	.05	.12	1.97*			
		과잉기대	-.04	.05	-.05	-.86			
		학대	.18	.06	.17	2.90**			
		방치	.13	.07	.14	2.02*			
2	죄책감	감독	.13	.05	.17	2.80**	.23	.21	13.97***
		합리적설명	.11	.05	.13	2.11*			
		애정	.14	.06	.16	2.17*			
		과잉간섭	-.01	.05	-.01	-.11			
		과잉기대	.08	.05	.09	1.71			
		학대	-.17	.06	-.16	-2.79**			
		방치	-.04	.07	-.05	-.65			
3	청소년 문제행동	감독	-.04	.05	-.06	-.93	.16	.14	7.95***
		합리적설명	-.01	.05	-.01	-.16			
		애정	-.02	.06	-.02	-.31			
		과잉간섭	.10	.05	.12	1.96			
		과잉기대	-.03	.05	-.04	-.67			
		학대	.16	.06	.15	2.56*			
		방치	.13	.07	.14	1.96			
죄책감	-.12	.06	-.12	-2.08*					

* $p < .05$, ** $p < .01$, *** $p < .001$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력은 15%였다. 2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감독($\beta=.17, p<.01$), 합리적 설명($\beta=.13, p<.05$), 애정($\beta=.16, p<.05$)이 죄책감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학대($\beta=-.16, p<.01$)는 죄책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2단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력은 23%였다. 3단계에서는 어머니의 학대($\beta=.15, p<.05$)만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죄책감($\beta=-.12, p<.05$)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에서는 어머니 학대만이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6%였다. 하지만 1, 2, 3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변인은 어머니 학대로 어머니 학대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의 $\beta=.17$ 이며 회귀모형은 1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3단계에서는 $\beta=.15$ 이며 16%의 설명력으로 총 $\beta=.02$ 의 감소를 보였고 설명력은 1% 증가하였다. 한편 Sobel test 결과 $z=2.37, p<.01$ 으로 나타나 죄책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 청소년 문제행동 그리고 죄책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죄책감이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변인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이 높을수록 청소년 문제행동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 애착이 낮을수록 문제행동 성향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김인숙, 이경남, 2004; 안혜원, 2007; 황숙영, 2006; Pierrehumbert, Miljkovitch, Plancherel, Halfon,

Anserment, 2000).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참여나 감독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과도 일치한다(고정자, 2005; 김현수, 김현실, 2000; 장영희, 1999; Wasserman, Miller, Pinner, Jaramillo, 1996). 즉, 부모의 긍정적인 관심과 지도는 청소년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핵가족화, 부모의 부재 및 맞벌이로 인한 부모역할의 부재 등과 같은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적절한 부모 양육태도를 위한 부모교육이나 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 죄책감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애정이 높을수록 죄책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Hetherington & Martin(1972)과 Zahn-Waxler & Kochanska(199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도덕적 정서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방치는 죄책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낮고 원인을 타인에게로 돌리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황은수(200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유사하게 최혜순(1993)의 연구에서도 권위적인 양육방식과 애정 철회의 양육방식을 사용한 부모의 자녀는 낮은 수준의 도덕성 발달을 보이는 한편, 애정적이고 유도적인 방법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자녀는 죄의식이 높고 잘못된 시인이 즉각적이고 이타적 성향이 높다고 보고했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애정적일 수록 도덕적 발달수준이 높아지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반성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방임과 같은 부모의 무관심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낮은 수준의 도덕성 형성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자기 반성적 사고를 돕는 죄책감의 발달을 위해 부모와의 애정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 죄책감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은 청소년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문제행동과 죄책감의 관련성을 밝힌 기존 연구들(하영희, 2004; 한세영, 2007; Tangney, 199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 문제행동은 죄책감이 높을수록 그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반성하면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이 줄어드는 반면 죄책감이 낮은 경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행동이 반복되거나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네 번째, 아버지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아버지 과잉간섭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과잉간섭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과잉간섭이 청소년의 죄책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죄책감이 부모의 설득형 훈육방식과 금지행동의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하영희와 김경연, 2003)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세히 구분하지 못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과잉간섭이 청소년의 죄책감 발달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어머니 학대와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죄책감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대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학대가 청소년의 죄책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문제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폭력적인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폭력행동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강영주, 김은주, 2006; 김미진, 1997; 배문주, 2004; 류설령, 1999; 서미경, 2003; 한지선, 2008). 이것은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행동으로 의뢰된 청소년의 경우 상담자는 부모상담 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의 차이를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상담을 받게 되는 청소년 내담자에게 긍정적 수용과 공감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적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공격이나 폭행 등 자신의 문제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게 하여 자신의 행위결과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통해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동기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죄책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 발달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훈육과 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각각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교육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죄책감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10~2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 양육태도가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이나 죄책감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죄책감과 관련하여 부모 양육태도 외에 애착, 개인의 인지적 기능, 종교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서 청소년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좀 더 다양한 변인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를 묻는 설문지 즉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기에 정확한 부모 양육태도를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를 사용함으로 연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비행 청소년들과 일반 청소년들 간의 어떠한 경로모형이 나오는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네 번째,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 척도를 TOSCA-adol을 사용하였는데,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척도에 따라 연구 결과가 비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척도와 함께 비교함으로써 척도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 번째, 매개효과 검증을 하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매개검증을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통합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영자, 김윤희 (1999). 비행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2), 243-254.
- 강영주, 김은주 (2006).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차이. **한국유아교육·보행학회지**, 10, 113-133.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경찰청.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 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김경연, 하영희 (2000). 죄책감과 청소년의 규칙위반행위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5-125.
- 김경연, 하영희 (2003). 죄책감, 도덕적 이탈, 및 친구의 규칙위반성향과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39-43.
- 김경희 (2002).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35-56.
- 김미정 (2005). **부모갈등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내면화와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1997).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 정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 (2006).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이점발견과의 관계 연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명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수치심 및 죄책감의 상관성 연구 : 일반 청소년 심터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2001). **부모갈등이 아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통제신념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황순택 (2003).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43-362.
- 김인숙, 이경님 (2004).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한국가정과학회지**, 7(2), 97-113.
- 김은미 (2006). **초등학생의 규칙위반행동과 도덕적 정서와의 관계: 죄책감과 수치심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1993). **친구와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이순래 (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수, 김현실 (2000). 청소년 비행행동 측정도구 개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1(1), 79-90.
- 김현순 (2005).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민 (2010).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수치심과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미 (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설영 (1998). **대인 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 연구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문주 (200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혜정, 황혜정 (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변인 및 자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서미경 (2003).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찬란, 이형실 (2006). **가족 환경 및 개인 심리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2), 151~162.
- 송경희 (2010).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도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원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홍세희, 최보윤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윤선희 (2007). **모의 양육태도 및 죄책감 경향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경남 (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남 (2004). **초기청소년의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2, 43-54.
- 이상균 (2008). **청소년 비행행동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39(1), 315-342.
- 이상현 (1994).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석형 (2007). **청소년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타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5(1), 223-246.
- 이성 (2006).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탄력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래 (2005). **지속적 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Moffit의 이질적 비행발생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6, 269-300.
- 이시연 (2011). **빈곤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9(2), 91-103.
- 이지숙 (2009). **청소년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보호요인 연구: 조절요인과 Suppressor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4), 281-300.

- 임성택, 김혜진 (200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연심, 조아미 (2007).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4(1), 123-136.
- 장영희 (1999). **여자청소년의 비행 실태에 관한 연구-소년원의 여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18(3), 569-592.
-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1989). **인간발달-발달심리적 접근**. 서울: 교문사.
- 조아미 (2011). 비행친구와 청소년 가출의 관계에서 약물사용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2), 79-95.
- 최보가, 유연옥 (2000). 사회 도덕적 위반사태에 대한 참여자 입장에서의 아동의 정서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13(3), 61-75.
- 최윤경 (2002).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이기봉, 김청송, 김진호 (2010). **청소년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최창석 (2009). **수치심, 죄책감의 이질성: 부모양육태도, 자기결정동기,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희 (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1-12.
- 하영희 (2004).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2(2), 42-52.
- 하영희, 김경연 (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7(1), 17-30.
- 한국청소년개발원편 (2006). **청소년문제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상철 (2008).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73-298.
- 한세영 (2007). 초기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 한지선 (2008). **부모 간 양육태도의 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차이**.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현하,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은수 (2006). **아동기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숙영 (2006).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ildren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ronfreed, J. (1964). The Origin of self criticism. *Psychological Review*, 71(3), 193-21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n-Ze'ev, A. (1997). Emotions and morality.

- Journal of Value Inquiry*, 31(2), 195–212.
- Bernburg, J. G., & M. D. Krohn (2003). Labeling, Life Chances, and Adult crime :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official intervention in adolescence on crime in early adulthood. *Criminology*, 41(4), 1287–1318.
- Blum, L. A. (1980). *Friendship, Altruism, and Mor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ybee, J., Williams, C., & Merisca. R. (1994). *Greater guilt is related to prosocial, academie,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Poster Presented at the 102nd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 Campman, M., Zahn–Waxler, C., Cooperman, G., & Iannotti, R. (1987). Empty and responsibility in the motivation of children`s help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2), 140–145.
- Feldman, S. S., & Wentzel, K. R. (1990). Relations among family interaction patterns, classroom self–restrai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readolescent boy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3), 183–189.
- Ferguson, T. J., & Stegg, H. (1995). Emotional state and traits in children The case of guilt and shame. In J. P. Tangney & K. W. Fischer (Eds.), *Self 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pp.174–197). NY: Guilford Press.
- Hamner, T. J., & Turner, P. H. (2001).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4th ed.). Massachusetts: Allyn & Bacon.
- Hetherington F. M. & Martin B (1972). *Family Interaction and psychopathology in children–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NY: Jhon Wily.
- Holmes, D. (1972). Aggression, displacement and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3), 296–301.
- Horibata, J. M. (2006).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adolescents: The role of parental monitering, association with deviant peers and identity on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doctor`s thesis, oregon University, Eugene, Oregon, United State.
- Horowitz, I. A., & Borders, K. S. (1995). *Social Psychology*. California: Mafield Publishing Company.
- Kalb, G. & Williams, J.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and Adult Crime*. Melbourne, Victoria: Melbourne Institute.
- Kolb, L. C., & Brodie, H. K. (1982). *Modern Clinical Psychiatry*. W. B. Saunders Company.
- Lewis, M.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osher, D. L. (1979).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guilt. In C.E. Izard(Ed.), *Emotions I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pp.105–129). NY: Plenum Press.
- Pierrehumbert, B., Miljkovitch, R., Plancherel, B., Halfon O., and Anserment, F. (2000). Attachment and temperament in early childhood; Implications for later behavior problem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9(1), 17–32.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 models. In S. Leinhardt (Eds.), *Sociological Methodology* (pp.290-312). SF: Jossey-Bass.
- Snock, M., & Cicchetti, D. (2001). Maltreatment competency deficits, and risk for academic and behavioral mal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3-17.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69-478.
- Tangney J. P. (1991). Moral effect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8-607.
- Tangney, J. P. (1995). Recent Advances in the Empirical Study of Shame and Guilt. *American Behavior Scientist, 38*(8), 1132-1145.
- Tangney, J. P. (1996).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Behavior research and theories, 34*(9), 741-754.
- Tangney, J. P. (1998). How does guilt differ from shame? In J. Bybee. (Eds.), *Guilt and Children*(pp.1-17). SD: Academy.
- Tangney, J. P. (2002).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hame and Guilt? Shame and Guilt* (pp.10-27). NY: Guilford.
- Tangney, J. P. & Dearing, R. (2002). *Shame and Guilt*. NY: The Guilford Press.
- Wasserman, G. A., Miller, L. S., Pinner, E. & Jaramillo, B. (1996). Parenting predictors of early conduct problems in urban, high-risk boy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9), 1227-1236.
- Zahn-Waxler, C. & Kochanska, G. (1990). The origins of guilt. In R. A. Thompson (Eds.), *The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8: Socioemotional development*(Vol.36, pp.182-257).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12. 0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5. 24.

게 재 결 정 일 : 2012. 06. 04.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a Guilty

Lee, Eungtaek

Kimpo Youth Counselling Center

Lea, Eunkyong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ed effect of guilty in the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For this study, 355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recruited. A Correlation, multi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employed to test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and guilty.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parent attitude, guilty,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were related positively. Furthermore father's over-protection and mother's abuse effecte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partially mediated by guilty. Therefore, perceived parent attitude directly influence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but also influence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through guilty.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and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Key words : *perceived parenting-attitude, guilty, problem behavior.*